

이주 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직업병연구센터 건강연구팀장 김규상
공동연구자/ 이미영, 박인정, 류향우, 김태균, 원용림, 이선웅, 송윤희
보고서번호/ 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8-30-41

이주 노동자는 다수가 불법 취업 형태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및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이주 노동자의 현황 파악과 기존 건강실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유해 위험 노출지표 개발과 평가를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2005년 12월 현재 전체 체류 외국인인 747,467명이었고, 이중 합법 외국인근로자는 167,022명, 불법 체류외국인은 180,792명이었다.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전체 산재는 2,724명, 2005년 2,517명, 2006년 3,407명, 사망자는 2004년 67명, 2005년 74명, 2006년은 95명, 업무상질병은 2004년에 33명, 2005년 40명, 2006년 8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업무상 질병이 산재에서 차지하는 분포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재해율은 국내 근로자보다 높은 비율

을 보였다.

건강 설문 조사 결과, 조사대상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분포는 직무자율 관계, 갈등 조직체계에서 참고기준치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기준치에 비해 남녀 모두 낮게 측정되었다. 문제 음주율은 26%였고,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05에 의한 우리나라 평균인 362%(남자 590%, 여자 138%)보다 낮았다. 직무스트레스 요인별로는 물리환경과 직무 불안정 요인의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문제 음주율을 보였다. 근골격계 증상유병률은 98%로 동일기준과 부위가 사용된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별로는 직무요구와 직장문화요인의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근골격계 증상유병률을 보였다.

이주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언어, 사회, 문

화적 고립도에 비해 우울증상 평균과 증상유병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 본 연구 대상이 각 이주노동자 공동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주대상이었으므로 동료사회에서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인 관계로 비우울자의 선택편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제 음주율이 기존의 국내연구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서는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 하에 있는 국가 출신 때 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근골격계 증상률이 기존의 국내연구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낮은 연

령, 20대와 30대가 73%로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기간, 2년 이내가 77%로 인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장에서의 주요 건강문제, 산업재해 사고와 직업병은 고용상의 합법, 불법문제와 무관할 수 없으며, 언어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차별 등의 환경과 근본적인 조건의 개선이 우선 요구된다. 더불어 그와 같은 특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제공 | 산업안전보건연구원